



‘마스크맨’ 손흥민

1차전부터 나올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는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재를 만났다. 대표팀 주장이자 최고 스타인 손흥민(토트넘)이 불의의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달 1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토트넘과 마르세유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전에서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에 수술까지 받아 월드컵 출전이 가능할지마저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골절상이라 빠른 회복을 위해 눈으로 보이는 조치를 더 하기 어려운 만큼 손흥민에게는 이전 최대한 조심하며 실전을 치를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 것만이 남았다. 벤투호의 첫 경기인 24일 우루과이전까지 아직 시간이 다소 있으나 수술 부위 상처가 여전히 선명하고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지

수술 부위 상처 선명·붓기 가라앉지 않아 24일 우루과이전 나설지 미지수 마스크에 땀 찼을 때 움직임 중요 ... 출전 여부 상대에 주는 무게감 달라

는 않은 상태라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더라도 치열함의 연속인 월드컵 경기에 바로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흥민은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했다. 이날도 검은색 안면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땀을 만들었다. 무리 없이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했지만, 간간히 마스크를 만지며 불편해하는 기색도 보였다. 그래도 불을 다루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스프린트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대표팀에 희망을 안기는 부분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4년 간의 과정 전체를 이끌어

온 중심이 결국은 손흥민이기에 1분도 출전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게 현재로서는 중론이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등극하는 등 커리어의 정점에서 맞이하는 월드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손흥민의 의지도 남달라 결국은 그라운드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몇 분을 뛰든 그 선수가 ‘손흥민’인 것과, 아닌 것은 한국과 맞설 상대에게 주는 무게감에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손흥민이 출전하게 된다면 몸 상태와 더불어 중요해진 게 마스크 착용인데, 준비해 온 마스크는 가볍고 단단하고 착용감도 좋은 게 그의 설명이다.

아직은 마스크 쓴 채로 운동한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 훈련하는 중 여러 차례 고쳐 써가며 조정하며 익숙해지는 단계다. 남은 변수는 ‘땀’이다. 손흥민은 도하 입성 뒤 기자회견에서 마스크에 대해 “영국에서 썼을 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영국에서는 편안한 상태였는데, 날씨가 더워서 땀이 흐르는 것 빼고는 괜찮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도하는 오후 5시께면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진다. 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는 현지 오후 4시 또는 6시에 시작해 절반 혹은 전체가 ‘야간 경기’가 된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기온은 20도 후반대를 기록 중이다. 땀을 흘리지 않고 경기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남은 시간 손흥민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의 어색함을 줄이고, 마스크에 땀이 찼을 때도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담금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발베르데 ‘발’ 묶어야 우루과이 잡는다

한국팀 첫 상대 우루과이 밝은 분위기 속 ‘완전체’ 훈련 발베르데 시종 진지한 태도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 대표팀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1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의 첫 상대 우루과이가 도하 입성 첫날부터 사실상 완전체로 훈련을 소화했다. 분위기는 ‘매우’ 밝았다. 디에고 알란소 감독이 이끄는 우루과이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5시께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을 소화했다. 우루과이 선수단은 이날 오전 도하에 입성한 터였다. 결전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모친상을 당한 팀의 3번 옵션 골키퍼 세바스티안 소사(인디펜디엔테)를 제외한 25명의 선수가 모두 참여한 사실상의 ‘완전체 훈련’이었다. 다르윈 누녜스(리버풀), 에딘손 카바니(발렌시아), 루이스 수아레스(나시오날),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 로드리고 벤타쿠르(토트넘), 디에고 고딘(벨레스 사르스필드) 등 현재 빅리그를 주름잡거나, 한때 빅리그에서 뛰었던 슈퍼스타들이 저녁 조명을 받으며 훈련했다. 9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을 다쳐 수술을 받은 아라우호도 훈련에 참여했다. 우루과이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코치가 지정한 숫자 대로 짝을 못 짓고 남겨진 선수들에게 별책을 주는 날이 시작됐다. 현지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꼽히는 누녜스가 걸려 ‘인디언 밥’ 세례를 받았다.

이러 공 빼앗기 훈련을 가볍게 할 때도 우루과이 선수들은 서로 장난치며 즐거워했다. 다만, 현재 우루과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인 미드필더 발베르데만큼은 웃지 않았다.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훈련에 임했다. /연합뉴스

2차전 상대 가나 아도 감독은 손흥민의 옛 스승 고기엔 진심인 우루과이 육류 900kg 마련 선수 부인·여자친구 대회기간 단정한 옷 입어야

카타르 월드컵 이모저모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옛 스승’이 이끄는 가나를 상대로 벤투호에 귀중한 1승을 안길 득점에 도전한다. 한국팀의 16강 진출전략은 가나에 반드시 승리하고, 우루과이,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최소 승점 1점을 쟁기는 것이다. 가나를 이끄는 오토 아도 감독이 한국이 가진 ‘최고의 무기’ 손흥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도자다. 아도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함부르크에서 일하면서 유소년팀을 지도했는데, 이때 손흥민과 인연을 맺었다. 손흥민은 2008년부터 함부르크 유소년팀에서 ‘축구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아도 감독은 당시 독일어가 서툴렀던 손흥민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통역을 구해서라도 설명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세심하게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벤투호의 조별리그 상대 우루과이는 남미 국가대표 축구만큼이나 고기에도 진심이다. 두 팀이 월드컵 기간을 대비해 각각 900kg가량 씩 도합 1800여kg의 육류를 마련했다고 스포츠 매체 ESP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루과이의 경우 안정적인 고기 공급을 위해 이달 초 자국의 육류협회(INAC)와 공식 협력 관계까지 체결했다.

이그나시오 알란소 우루과이축구협회(AUF) 회장은 “대표팀의 영양 상태를 최고로 유지 중”이라며 “AUF는 우루과이의 역사적인 홍보대사직을 수행 중인데, 세계 최고의 고기인 우루과이산 고기까지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아랍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선수들의 아내와 여자 친구들의 옷차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은 20일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내 또는 여자친구들이 이번 대회에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슴 부위가 많이 파인 상의나 짧은 치마, 몸에 딱 붙는 바지 등은 아예 카타르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올해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여성 외국 방문객들에게까지 머리를 가리도록 하지는 않지만 노출이 심한 패션은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다. 데일리메일은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들의 아내 또는 여자친구들은 이번 대회에 긴 드레스나 팔까지 가리는 상의로 카타르 문화를 존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명의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아내 또는 여자친구의 패션은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 코니 존스는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경기장 외의 식당 등에서도 이런 옷을 입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